



기획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 천지은
충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혁신원 조교수 / 주저자
 <https://orcid.org/0000-0003-1739-2808>
-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3-1739-2808>

투고일: 2021.05.16. / 심사완료일: 2021.06.02. / 게재확정일: 2021.06.10.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6차년도(2016년)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 우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는 사회적 위축감, 우울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및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우울

* 이 글은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과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지닌 인구조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체 혼인 대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 7.4%에서 2019년 10.3%로 조금씩 증가하여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출생 역시 2015년 4.5%에서 2019년 5.9%로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9).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언어 문제, 학교폭력, 편견, 이종차별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나이가 사회적 위축, 고립감,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Khanlou et al., 2008).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경우 초·중등학교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12,478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는 아직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교육 및 복지의 주요 대상으로서 관심을 덜 받아 왔으며(유근화 · 신현태, 2016),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박근영 외, 2013; 손신영, 2019).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기로 진입하게 될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 심리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우울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임혁, 2010; 조인주 · 현안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시 한국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haley & Francis, 2006; 남윤주 · 이숙, 2009; 강현주 외, 2018). 부모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는 사회적 정체성 혼란이나 충동을 가져와 다문화 청소년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언어발달 저하로 인한 학습부진 역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이들의 취약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급증한 시기인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정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부부간의 의사소통 등 주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상태 및 생활적응, 그리고 부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조인주·현안나, 2012; 이은진·이교일, 2014). 이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점차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 발달상의 어려움(Kimayer, 2012), 낮은 자아존중감(이광성, 2012), 정신건강 문제(임소연·박민희, 2014), 자살 문제(전정숙·송민정, 2011; 오승환, 2016),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김정민 외, 2015)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 이를 위해서는 발달자원으로서 내·외적 자원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다. 피터(Peter, 1999)는 발달자산모형을 제시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발달자산으로서 내·외적 자원이 중요하며 각각을 긍정적 자아상과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나 학교생활적응 등 다양한 현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자산으로 이와 같은 내·외적 자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외적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하는데 효과적이며(Lakey & Orchek, 2011), 특히 차별과 편견, 소외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원영·김경식, 2020). 즉, 부모,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과 타인과의 친밀감 및 상호 유대감 형성은 물론 대인관계에

서 나타나는 불안과 소극적 태도를 수반하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DSM-IV-TR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임상적 상태로 우울증을 기술하고 있다(최경숙, 2007). 특히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친밀한 대인관계 지속 및 형성에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bios & Flay, 2004). 이를 고려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및 스트레스, 친구관계, 성격 등을 들고 있다(문지혜, 2019). 또한 문지혜(2019)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개인의 성격적 원인으로 낮은 외향성과 위협 회피 등과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새로움에 대해 거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이도영 외, 2017), 자아존중감(이광성, 2012; 유승희, 2020), 사회적 위축(문지혜, 2019)을 변수로 설정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시기가 최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우울과 발생 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앞서 열거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는 하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과관계모형 검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청소년기의 발달자원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에 주목하여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자원인 내·외적 자원을 설정하고, 내적 자원을 자아존중감으로, 외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하여 각각의 자원과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울의 증재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우울

DSM-IV에 의하면, 우울이란 우울한 기분 및 흥미와 즐거움 감소 등 두 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체중감소 및 식욕감퇴,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 피로, 활력 저하, 무력감 및 죄책감,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 등의 증상을 의미한다(미국정신의학회, 1997). 이러한 우울은 연령층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데(Yearwood & Siantz,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약 28.3%가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20) 청소년 우울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정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여부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음으로 보고하고 있는데(김정민 외, 2015)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청(2020)의 발표를 고려한다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정체감을 상실하거나 문화적 갈등 또는 스트레스를 겪으며(이지선·김정민, 2021)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능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우울과 같은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최은희·김경은, 2018). 유정균(201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과 스트레스 및 자살 생각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인 청소년과는 다른 피부색, 외모, 체형 등을 지니며 학교나 사회에서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소현 외(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개인변인(자이존증감, 언어(한국어) 사용

능력), 가족변인(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시간, 부모관심도), 학교변인(학교적응, 학교공부 어려움, 학교폭력 경험)으로 구분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기출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영선·조영일, 2019; 이원기 외, 2019; 홍성초·조제성, 2020). 또한 우울이 심해질 경우, 자살생각 또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김민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중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감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위축이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낯선 사람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ubin et al., 2014). 이러한 사회적 위축에는 ‘수줍음’, ‘무시당함’, ‘사교적이지 못한’, ‘회피적인’ 등과 같이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Schneider, 2000; 이시형 외, 2000 재인용).

Rubin et al.(2009)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편견,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거나 자신을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우울이나 불안 증세 등 심리적 부적응을 비롯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문제로도 이어져 등교 거부로 인한 학업중단을 경험하기도 한다(Rubin et al., 2009).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 관련 연구들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 모상현(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최효식·연은모(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부모모감독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및 또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미·이동형(2021)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중단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서 부모의 높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높이며 친구지지가 이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원영·김경식, 2020)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정나은·김원영, 2020),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정은, 2020). 또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래혁·장혜림, 2020).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 관련 연구는 대체로 최근에 발표되어 이들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분석하고, 관련 원인과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외적 자원

피터(Peter, 1999)가 제시한 발달자산모형(Developmental Assets Model)에 따르면, 청소년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환경자원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환경자원을 사회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는 외적 자원과 개인적 요소를 의미하는 내적 자원으로 구분하면서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 권한부여, 주변인 기대를, 내적 자원으로 긍정적 자아상 및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발달자산모형을 근거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족 유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현미나(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 내적 자원을 자아존중감이라는 구체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1) 내적 자원 : 자아존중감

내적 자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목표를 위해 스스로 자기

를 통제하는 것이다(심영미·박미혜, 2010). 이러한 내적 자원의 대표적인 변수로 자이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이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잠재된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이도영 외, 2017).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이존중감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자이존중감은 청소년기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친구-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며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장선희·이미애, 2010).

이러한 자이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패트릭(Patrick, 2004)은 청소년의 내적 자원으로 자이통제감과 자이존중감을 설정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심영미·박미혜(2010)의 연구에서도 자이존중감을 내적 자원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선희·이미애(201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이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이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김평화·윤혜미,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승희, 2020). 이처럼 자이존중감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이존중감을 내적 자원으로 설정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과 감정 완화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외적 자원 : 사회적 지지

외적 자원은 한 개인을 둘러싼 제반 환경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외적 자원의 대표 유형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Peter, 1999). 사회적 지지는 카셀 등(Cassel et al., 1976)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여 이후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박지원, 1985).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비롯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외적 자원이다(모상현, 2018). 또한 주위로부터의 인정, 물적 원조, 정보제공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자원으로 개인의 건강

한 발달과 환경적응을 돕는다(신은경·최정아, 2007).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용한·이신동, 2017; 박지선·현미나, 2018; 이형하, 2020). 또한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설진배 외, 2019; 채경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유승희, 2020), 우울(이도영 외, 2017), 학교생활적응(박지선·현미나, 2018), 임파워먼트(장용희, 2018)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중요한 외적 자원으로써 이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외적 자원으로 보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역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4.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앞서 연구목적에서 제시했다시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문지혜, 2019; 김원영·김경식, 2020; 이도영 외, 2017).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우울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경숙, 2007; 이도영 외, 2017). 이은희 외(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도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영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검증했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는 횡단분석뿐 아니라 종단분석을 통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체적을 주제로 한 한광현(2020)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우울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외적 자원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상현(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을 통한 친밀감 증대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은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주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문제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제반 자원인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에 의해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은 그들의 발달자산인 내적 자원(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간 관련성을 각각 검증하고 있을 뿐 '내·외적 자원 → 사회적·위축 → 우울'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인과관계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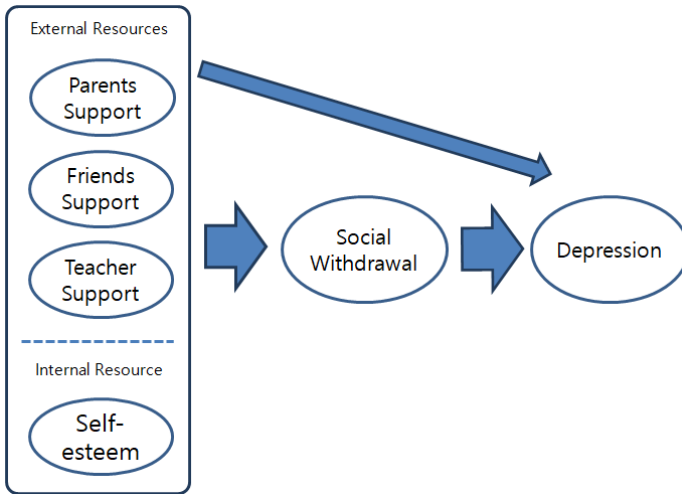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그들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1년도부터 다문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실시된 대표성 있는 종단

조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 조사는 2011년 최초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635명과 학부모 1,625명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후기청소년기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표본학교별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정책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이루어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환경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는 청소년 1,332명이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응답 누락 사례를 제외하고, 총 1,26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변수별로 발췌, 수정한 후 최종 사용하였다.

1) 우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외, 1984)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13문항 중 이경상 외(2011)가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10문항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05$ 이었다.

2)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김경연(1998)이 개발하고, 이경상 외(2011)가 수정 보완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08$ 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유안진(1996)의 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3개 하위영역 총 13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모지지는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다',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 주신다' 등 5문항, 친구지지는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등 3문항, 교사지지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등 3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수량화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08$ 이었다(부모지지 0.899, 친구지지 0.947, 교사지지 0.920).

4)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9)가 개발하고 오전영(1981)이 변안한 자아개념검사 사용한 박난숙·오경자(1992)의 척도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33$ 이었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과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연속변인으로 통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구조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사회적 지지는 3요인 사고모형,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각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측정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내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우울 등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도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지표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적정모형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t값에 대한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Peek, 200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

년의 성별은 남성 619명(49.0%), 여성 644명(51.0%)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연령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5세가 1,126명(89.2%)으로 가장 많았고, 14세(95명, 7.5%), 16세(42명, 3.3%)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56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 374명(29.6%), 대도시 324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449명, 35.6%), 필리핀(317명, 25.1%), 중국 조선족(230명, 18.2%)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출신국은 한국(1,219명, 96.5%)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부분(96.5%)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263)

Variables	Categories	n	%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n	619	49.0	Parent's country of origin	South Korea	40	3.2	
	Woman	644	51.0		China (Han-chinese, other ethnic groups)	83	6.6	
Years	14	95	7.5		China (Korean-chinese)	230	18.2	
	15	1,126	89.2		Vietnam	34	2.7	
	16	42	3.3		Philippines	317	25.1	
Residence	Metropolitan	324	25.7		Japan	449	35.6	
	Micropolitan	565	44.7		Thailand	49	3.9	
	Township	374	29.6		Etc.	61	4.8	
Whether the parents are foreigners	Father	40	3.2		Father	South Korea	1,219	96.5
	Mother	1,219	96.5			China (Han-chinese, other ethnic groups)	2	0.2
	Both	4	0.3	China (Korean-chinese)		1	0.1	
				Vietnam		2	0.2	
				Philippines		5	0.4	
				Japan		17	1.3	
				Thailand		1	0.1	
Etc.	16	1.3						

2. 주요변수의 타당도 및 평균점수

주요변수의 타당도와 평균점수 산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지지(7문항), 친구지지(3문항), 교사지지(3문항)를 사교모형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chi^2(df)=602.707(62)$, CFI=0.964, TLI=0.955, RMSEA=0.083으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42.84점(표준편차 6.24, 범위 15~54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4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chi^2(df)=1.204(1)$, CFI=1.000, TLI=1.000, RMSEA=0.013으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12.56점(표준편차 2.20, 범위 4~16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위축(5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df)=26.126(3)$, CFI=.995, TLI=.982, RMSEA=.078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위축 평균점수는 11.65점(표준편차 3.65, 범위 5~20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10문항)을 1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chi^2(df)=427.938(31)$, CFI=0.940 TLI=0.913, RMSEA=0.101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17.10점(표준편차 5.36, 범위 10~4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Validity and the Mean of Main Variables

Main Variables	Validity				Mean ±SE (range)
	$\chi^2(df)$	CFI	TLI	RMSEA	
Social Support	602,797(62)	0,964	0,955	0,083	42,84±6,24 (12~54)
Self-esteem	1,204(1)	1,000	1,000	0,013	12,56±2,20 (4~16)
Social Withdrawal	26,126(3)	0,995	0,982	0,078	11,65±3,65 (5~20)
Depression	427,938(31)	0,940	0,913	0,101	17,10±5,36 (10~40)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모든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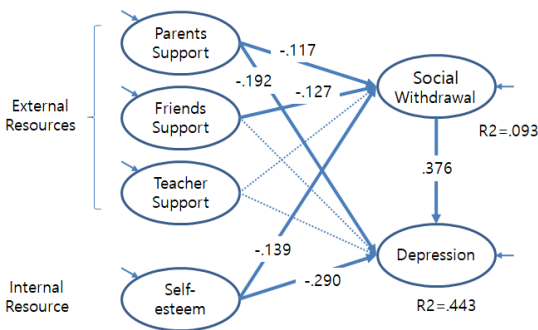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1	2	3	4	5	6
1. Parents Support	1					
2. Friends Support	.438***	1				
3. Teacher Support	.401***	.593***	1			
4. Self-esteem	.459***	.538***	.443***	1		
5. Social Withdrawal	-.224***	-.269***	-.184***	-.342***	1	
6. Depression	-.381***	-.349***	-.269***	-.448***	.506***	1

* $p < .05$, ** $p < .01$, *** $p < .001$

4. 연구모형 검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변수 간 관련성을 <Figure 2>와 같이 살펴보았다.



n=1263 x2(df)=1759.527(462) CFI=.952 TLI=.945 RMSEA=.047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s)

먼저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df)=1759.527(462)$, CFI=0.952, TLI=0.945, RMSEA=0.047로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0.117(p<.05)$, $-0.127(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0.031)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서 사회적 위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39(p<.05)$ 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에 있어서 부모지지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92(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우울에 대한 친구지지(-0.063)와 교사지지(0.031)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290(p<.05)$ 으로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위축에서 우울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376(p<.05)$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44.3%였다.

결과적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이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심리

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구지지는 우울, 불안, 정서적 고립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Rubin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서의 자연스럽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가 보이는 사랑, 관심을 통해 자녀와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점에서 부모,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로 인한 언어능력 발달 저하, 한국문화 및 가치관, 습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빠지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복합적인 부적응문제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차별, 편견,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부모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지지, 교사지지는 우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손신영, 2019).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안정된 생활 및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범기, 2020)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 교육 등에서 갈등유발요인을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적합하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또래지지와 우울, 교사지지와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

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측면에서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교사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부모지지, 친구지지)과 비교하여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도영 외(2017)의 연구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사지지 및 학교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인과관계모형 분석에 있어서는 교사지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선행변수들(부모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호관련성을 갖고 산출되어 상관관계가 가장 약했던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희박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데이터에서는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에 대한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향후 다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정을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의 장인만큼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해 교사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모국문화 또는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9)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소외감, 차별, 편견 등의 경험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문제

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주어진 변수를 통해 관련성을 검증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므로 본 자료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과 자존감,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연구대상이 중학교 2학년으로 이 대상에 대한 횡단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학년 변화에 따른 종단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시기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도 및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 강현주·박현주·현혜진(2018).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3), 146-156. [Kang, Hyun-ju, Park, Hyun-ju, & Hyun, Hye-jin (2018). Comparison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violence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orig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1(3), 146-156.]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 김민경(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2), 315-324. [Kim, Min-kyeong (2016). A convergent study of variables influencing on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315-324.]
- 김원영·김경식(2020).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125-150. [Kim, Won-young, & Kim, Kyung-sik (202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2), 125-150.]
- 김정민 외(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비교. **소아청소년정신학회지**, 26(4), 279-287. [Kim, Jung-min, et al. (2014).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mental health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monocultural fami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4), 279-287.]
- 김정은(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Kim, Jung-eun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schoo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31(3), 21-37.]
- 남윤주·이숙(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Nam, Yun-ju, & Lee, Sook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her's attachment, self-concept, daily stress,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typical korean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3), 357-367.]
- 모상현(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 68-93. [Mo, Sang-hyun (2018).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54, 68-93.]
- 문소현 외(2018). 다문화 가정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영향 요인. **한국아동간호학회**, 24(4), 434-442. [Moon, So-hyun, et al. (2018).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depress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4), 434-442.]
- 문지혜(2019).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매개역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0), 551-561. [Moon, Ji-hye (2019). Mediating role of regulator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hibition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551-561.]
- 미국정신의학회(1997).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제4판)**, 이근후 옮김. 하나의학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4th Ed.), translated by Gun-hoo Lee. Hanauihaksa.]
- 박근영·최유라·김보라(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155-165. [Park, Geun-young, Che, Yoo-ri, & Kim, Bo-ra (2013).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1), 155-165.]
- 박범기(2020).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4(1), 33-53. [Park, Bum-ki (2020).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youth from low-income family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4(1), 33-53.]
- 박용한·이신동(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Park, Yong-han, & Lee, Shin-dong (2017). Exploring the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during elementary to middle-school transition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Education Inquiry*, 35(4), 1-19.]
- 박지선·현미나(2018). 조선족 유수청소년의 발달자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205-221. [Park, Ji-sun, & Xuan, Meina (2018).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al assets for Korean Chinese left-behind adolescent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2(4), 205-221.]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Park, Jee-won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설진배·이은국·김지혜(2019).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Crisisonomy**, 15(7), 103-123. [Sul, Jin-bae, Lee, Eun-kook, & Kim, Ji-hae (2019).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atives and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of migrant adolescents in Korea. *Crisisonomy*, 15(7), 103-123.]
- 손신영(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101-111. [Sohn, Shin-young (2019).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3), 101-111.]
- 신은경·최정아(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1-29. [Shin, Eun-kyoung, & Choi, Jung-ah (2007).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pinal cord injuries'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Disability Identity*, 11(1), 1-26.]
- 심영미·박미혜(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 내적자원과 정신건강과의 인과관계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36(2), 1-22. [Sim, Young-mi, & Park, Mee-hye (2010). An analytic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tress, internal resour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Science*, 36(2), 1-22.]
- 오승환(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Oh, Seung-hwan (2016).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 depress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 유근환 신현태(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례분석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147-165. [Yoo, Keun-hwan, & Shin, Hyon-tai (2016). Exploratory study on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youth,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33(1), 147-165.]
- 유승희(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이스포라연구**, 14(1), 155-192. [Yu, Seung-hee (2020).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4(1), 155-192.]
- 유정균(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출신국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4(2), 160-171. [Ryu, Jung-kyun (2019). Effects of body image distortion o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2), 160-171.]
- 이광성(2012).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존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Lee, Kwang-sung (2012).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on social adjustmen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4(1), 91-107.]
- 이도영 정계현·서혜영(2017). 중학생의 우울의 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2), 136-145. [Lee, Do-young, Jung, Gye-hyun, & Seo, Hye-young (2017).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0(2), 136-145.]
- 이래혁·장혜림(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 121-144. [Lee, Rae-hyuck, & Chang, Hae-lim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62, 121-144.]
- 이시형 외(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2000-2호. [Lee, Si-hyung, et al. (2000).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maladjustment of lonely adolescents*.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Social and Mental Health Research Report 2000-2.]
- 이원기·유효은·이창한(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183-224. [Lee, Won-ki, Yu, Hyo-eun, & Lee, Chang-han (2009). A study on the delinquency trajectory of multi-cultural juvenil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group selection, *Journal of Police Policies*, 33(1), 183-224.]
- 이은진·이교일(2014).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27-54. [Lee, Eun-jin, & Lee, Kyo-il (201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or the depress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4(1), 27-54.]
- 이주희 외(2007). 결식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스트레스,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관계. **상담학연구**, 8(2), 621-637. [Lee, Ju-hee, et al. (2007). The relation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for poorly-fed childr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2), 621-637.]
- 이지선·김정민(202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 위축, 국가정체성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59-88. [Lee, Ji-seon, & Kim, Jung-min (2021).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youth children's depress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8(2), 59-88.]
- 이형하(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197-205. [Lee, Hyoung-ha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learning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5(4), 197-205.]
- 임소연·박민희(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3), 1641-1651. [Yim, So-youn, & Park, Min-hee (2014).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ed to gene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41-1651.]
- 임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Im, Hyuk (2010). The impact factors on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 189-221.]
- 장선화·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Jang, Sun-hee, & Lee, Mi-ae (2010).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7(8), 27-55.]
- 장용희(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 발달자산,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8(2), 809-830. [Chang, Yong-hee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 809-830.]
- 전경숙·송민경(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Jun, Kyung-suk, & Song, Min-kyoung (2011).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1), 305-330.]
- 전수정·윤혜미(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Jeon, Su-jeong, & Yoon, Hye-mee (2013).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153-179.]
- 정나은·김원영(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493-517. [Jung, Na-eun, & Kim, Won-young (2020). Longitudinal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career determination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493-517.]
- 정주미·이동형(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Jung, Ju-mi, & Lee, Dong-hyung (2021).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32(1), 57-85.]
- 조영산·조영일(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 10(5), 325-340. [Jo, Yeong-seon, & Cho, Young-il (2019). Latent change types in delinquency group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with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5), 325-340.]
- 조인주·현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Cho, In-ju, & Hyun, An-na (2012). Structural relations among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177-206.]
- 채경희(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357-369. [Chae, Kyung-hee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357-369.]
- 최경숙(2007). 자기존중감과 긍정심리학. **스트레스연구**, 15(3), 205-214. [Choi, Kyeong-sook (2007). Self-esteem and positive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5(3), 205-214.]
- 최은희·김경은(2018).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27-39. [Choi, Eun-hee, & Kim, Kyung-eun (2018). Explorati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immigrant school-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27-39.]
- 최효식·연은모(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11-126. [Choi, Hyo-sik, & Yeon, Eun-mo (2020). Current and lag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cculturative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on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111-126.]
- 통계청(2019).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Statistics Korea (2019). *2019 Multicultural demographic statistics*.]
- 통계청(2020). **2020 청소년통계**. [Statistics Korea (2020). *2020 Youth statistics*.]
- 한광현(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1), 56-83. [Han, Kwang-hyun (2020).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mo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8(1), 56-8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1~6차 데이터유저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9).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1-6 data user guide*.]
- 홍성초·조재성(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253-267. [Hong, Seong-cho, & Cho, Je-seong (202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delinquency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7(4), 253-267.]

2. 국외논문

- DuBois, D. L., & Flay, R. R. (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Crocker and Park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 415-42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hanlou, N., Koh, J. G., & Mill, C. (2008). Cultural identity and experience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Afghan and Iranian immigrant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6*(4), 494-513.
- Kimayer, L. J. (2012). Rethinking cultural competence. *Transcultural Psychiatry, 49*(2), 149-164.
- Lakey, B., & Orechc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495.
- Patrick, A. B., Eric, C., & Thomas, V. P. (2004). Perceived stress, internal resource and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among young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61-170.
- Peek, M. 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3), 301-309.
- Peter, C. S. (1999). Reducing risks and building developmental assets: Essential actions for promoting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69*(3), 113-119.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ubin, K. H., Roor, A. K., & Bowker, J. (2010). Parents, peers,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 relationship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0*(127), 79-94.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 Menzer, M. (2014).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 (Eds.), *Wiley Blackwell handbook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Wiley-Blackwell.
- Whaley, A. L., & Francis, K.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 Yearwood, E. L., & Siantz, M. L. D. (2010). Global issues in mental health across the Life Span: Challenges and nursing opportunitie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45*(4), 501-519.

천지은(주저자)

현재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혁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직업재활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고용정책, 상담심리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서비스품질과 대학 졸업예정자의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과 진로선택몰입의 이중매개효과 검증”(청소년시설행경, 2019),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수평적 의사소통구조의 매개효과”(인문사회21, 2019) 등이 있다.

E-mail: yesi614@hanmail.net

박지선(교신저자)

현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및 중앙승가대 사회복지전공 강사로 활동 중이다. 전공분야는 보건복지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 다문화복지, 노인복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사회적질연구, 2020), “직무요구-자원모형을 적용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환경, 직무열의, 직무소진 간 관련성”(한국군덴초학회논문지,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한국융합인문학, 2020) 등이 있다.

E-mail: lundy@hanmail.net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un, Ji-eun

Professor, Center for Student Growth & Education Innovation, Joongbu University / Lead Auth.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 Corr. Aut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6th surve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in which 1,263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kinds of social support, the parent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achers' suppor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erms of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pre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social intervention that could help lower level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